



信賴 마당문 農業政策 수립해야

“農村경제 경제전체와 연계 파악토록”

『40여년 農學의 도정을 여러분의 축하와 격려속에 일단 정리하고 보니 그저 감사한 마음과 감개 무량할 뿐입니다.』

서울대농대에서만 40년을 보낸 우리나라 농학계의 泰斗 德岩 李殷雄박사(65)는 스스로 좋아서 택했던 「농학의 길」을 결코 후회해본 일이 없이, 국가사회의 격변기에는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고뇌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보람과 기대를 항상 지니며 살아왔다고 회고한다.

1923년 忠南 당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裡里농림학교와 水原고등농림학교에서 농학을 전공, 1949년 9월 서울대농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만40년을 농학기 초이론과 체계의 확립을 통한 식량자립을 위한 연구와 후학양성에 몰두해온 李박사이기에 한마디로 해방이후 우리나라 농학도의 엘리트 대부분이 李박사의 지도로 키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해보아도 인간세사와 학문의 길에서 많은 선배와 은사, 후학들의 사랑을 과분하게 받아왔다고 느낍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農學의길로 걸어왔으나 사실은 고향의 보통학교를 졸업할 당시는 사범학교에 진학하여 평범한 교수가 되려는 꿈을 가졌다고 털어 놓는 李박사가 농학의



德岩 李殷雄 교수

길을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보통학교때의 日本人 담임의 적극적인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고 들려준다.

『農學을 하면서 자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나 농업경제에 직·간접으로 현실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적극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위정자들이 농민 또는 농촌 경제를 생각할 때 한국경제 전체의 일환으로 파악해 주기를 바랍니다. 쌀이나 쇠고기수입같은 문제도 소비자 입장만 크게 부각시키다보니 농촌에서 묵묵히 농축산정책만 믿고 따르는 농민들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지요. 정부는 하루속히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겠습니다.』

李박사는 오랜동안의 농업정책 미흡에도 불구하고 74년이후 통일벼의 획기적 증산으로 4천만석을 돌파한 것은 농학도로서의 보람과 함께 우리 농민전체의 피땀 어린 노고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李박사는 서울대농대 재직중 농학교육의 진흥은 물론 농촌근대화와 직결된 새마을기술봉사단 활동지도와 농업의 산학협동강화 등에도 많은 공적을 남겼다.

그의 학문적 업적은 「水稻품종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1백76편의 논문과 1957년에 펴낸 「高等農業」을 필두로 최근에 「食用作物學」(1989년)에 이르는 총 58권의 저서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학자로서 연구와 봉사에 최선을 다해왔음을 읽을 수 있다.

李박사는 그의 퇴임사에서 중국의 고전 「大學」에 일관하게 흐르고 있는 明德, 親民, 至善의 이념을 오늘의 한국사회와 대학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희망했다.

『세상에서 근본이 문란한데도 그 말단만은 잘 다스려진 일이

農學教育 진흥 발전에 기여

“통일벼로 4천만석증산 큰 보람”

없다고 하였습니다. 농사, 농민,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 곧 농학입니다. 현대의 고도기술 문명사회도 따지고 보면 흙과 더불어 생산하는 농민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정년퇴직후에 李박사에게는 또 하나의 영예가 더해졌다. 제3회 仁村賞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健>